

1. 거시경제 및 통화정책 전망

- 코로나19의 글로벌 감염확산이 향후 주요국 성장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금번 전망에서는 다음과 같은 2개의 시나리오를 상정
 - 기본 시나리오: 대규모 2차 확산 없이 완만한 소강상태 진입
 - 2차 감염확산: 9월 이후 재확산되어 4분기중 신규 확진이 큰 폭으로 늘어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봉쇄조치 재개
- 미국(2020년 -5.7%)은 2분기중 큰 폭의 침체 이후 고용부진 지속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며 중국(+2.0%)은 대내외 수요 부진에 대해 적극적 경기부양책으로 대응할 전망
- 국내 경제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금년 중 역성장(-0.8%)할 것으로 예상
 - 금년 2분기를 저점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나 2차 감염확산(-1.9%)의 경우 저점이 4분기로 지연
 - 2021년 성장률은 3.4%로 예상되나 여전히 잠재GDP를 하회하는 수준

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요약

2019년	2020년		2021년	
	기본 시나리오	2차 감염확산	기본 시나리오	2차 감염확산
2.0%	-0.8%	-1.9%	3.4%	1.3%

- 한국은행은 금년 하반기중 추가로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 (2020년~2021년 0.25%)
 - 국내 성장경로 및 물가전망(2020년 0.4% → 2021년 1.1%)을 감안한 적정 기준금리는 0% 수준으로 추정
 - 2차 감염확산시 가계 및 기업 부채 불안 우려에 대응하여 회사채 및 은행채의 하단인 국채금리를 안정화하기 위해 양적완화를 도입할 필요

2. 한·미 금리 전망

- 2020년 상반기 국내금리는 높은 변동성을 동반한 가운데 하락세를 시현하였으나, 하락폭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
 - 기준금리 인하 및 안전자산 선호 등은 금리 하락요인으로 작용한 반면, 국채발행 증가 등 수급요인은 금리 상승을 유발
- 통화정책은 하반기에도 금리 하향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, 국채발행 증가는 기간 프리미엄 확대를 통해 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 -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(위험조정금리)는 하반기에도 상승압력이 크지 않은 상황
 - 수급측면에서 국고채 발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기간 프리미엄이 확대되며 금리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으로 한은의 적극적 국채매입이 필요
- 하반기 국내 금리는 한국은행의 적극적 국채매입을 전제로, 3년물 0.6%(3분기) → 1.1%(4분기), 10년물은 1.0% → 1.6%를 예상
 -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3분기까지 하락세를 유지할 전망으로 한은이 국채매입을 통해 금리 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

- 4분기에는 경기반등을 반영하며 상승세로 전환될 전망이나, 낮은 물가 및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경기회복세를 감안할 때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
- 다만, 코로나19 2차 확산 또는 미중 무역분쟁이 재부각될 경우 금리 하단이 낮아질 전망이며, 한은도 양적완화 수단으로서 국채매입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

□ 상반기 미국 금리는 3월 중순까지 급등락한 후, 연준의 무제한 국채매입으로 하향안정화

- 3월 중순까지는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장기금리가 급등락
- 3월 하순부터는 연준의 무제한 국채매입정책 시행으로 0.6~0.8% 범위에서 안정세를 유지

□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, 10년물 기준 0.6~1.2%의 범위에서 형성될 전망

- 코로나19 불확실성, 거시지표 및 주가 변화에 따라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
- 다만, 필요 시 연준의 국채매입 확대로 금리 상단이 제한될 전망이며, 코로나19 및 미중 무역분쟁이 재차 확산되지 않는 한 추가 금리 하락 여지도 제한

3. 한·미 주식시장 전망

□ 2020년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급락했던 KOSPI지수는 해외 주요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이며 2019년말 수준을 회복

- 코로나19 감염확산이 진정되고, 주요국의 확장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과 경제활동 재개 기대로 KOSPI 지수는 반등에 성공
 - 타국가 대비 안정적인 국내 방역 상황도 지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
- 국내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(KOSPI지수 2,050~2,350포인트)
- 국내외 경제활동 재개로 예상되는 하반기의 경기 정상화는 상당부분 주가에 선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지수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
 -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과 주요국의 통화 및 재정정책 효과는 지수의 추가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
 - 주요국 대비 양호한 방역성으로 실물경제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은 향후 경기 및 주가 회복에 긍정적 영향
- 대외적인 위험요인은 국내 주식시장의 조정요인으로 작용
- 2차 감염확산으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회복 과정에 차질이 발생한다면, 수출 위주의 국내 경제 및 주가지수에 부정적으로 작용
 - 미중 무역분쟁의 재부각 또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상황이 안정되면서 관세나 출구전략 등으로 국가간 갈등 발생은 국내 주식시장의 조정 요인으로 작용
- 2020년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큰 조정을 겪은 미국 주식시장은 반등에 성공하며 2019년말 수준을 회복
- 3월 코로나19 감염확산이 심화되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큰 폭의 조정
 -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진정되고, 백신 개발 및 경제활동 재개 기대로 미국 주식시장은 반등

- 미국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(S&P500지수 3,000~3,400포인트)
 - 경제활동 재개로 예상되는 하반기의 경기 정상화는 상당부분 주가에 선반영된 것으로 추정되어 지수의 추가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
 - 미연준의 통화정책과 유동성 공급,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는 추가적인 지수의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
 - 다만, 코로나19 재확산 또는 미중 무역분쟁의 재부각은 주식시장의 조정요인으로 작용

4. 원달러 환율 전망

- 2020년 원달러 환율은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급등하였으나, 금융시장 불안이 진정되고 경제활동 재개가 가시화되면서 하락 안정
 -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과 글로벌 실물경제 침체는 수출 비중이 큰 국내 경제와 원달러 환율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
- 원달러 환율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(1,160원~1,240원)
 - 금융시장 위험회피의 완화와 각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달러 강세의 진정세
 - 하반기 중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국내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, 수출은 전년대비로는 크게 부진하겠지만, 2분기에 저점을 찍고 3분기부터 하락세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
 - 미중 갈등으로 인한 위안화 약세는 원달러 환율 하락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
 - 다만, 코로나19 재확산 또는 미중 무역분쟁의 재부각은 원달러 환율의 추가적인 상승요인으로 작용